

“5·18때 광주는 민주·자유정신 역동하고 있었다”

광주 명예시민 美 티모시 스콧 사록 ‘더 네이션’ 기고

“북한군 600명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 어처구니 없어”

“1980년 5월 광주는 미국 정보 관련 부서의 관찰 아래 있었으나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광주에 있었다는 주장 등 북한군 군과 관련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의 세계화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5월21일 광주 명예시민이 된 미국 언론인 티모시 스콧 사록(Timothy Scott Shorrock·사진)이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에 광주 방문 당시의 소회 등을 담은 글에 실린 대목이다.

사록은 지난 5일자 해당 주간지에 ‘광주 항쟁과 미국의 위선(어느 언론인의 한국에 관한 진실과 정의에 관한 의문)’이란 제목으로 실은 글에서 광주명예시민증에 대한 소회, 5·18의 실상 및 의미,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록은 먼저 “광주시민의 날인 5월21일

옛 도청 앞에서 매우 존경받는 진보적 정치인 윤장현 시장으로부터 광주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광주시민의 날은 1980년 학생 주도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기념하는 날이다”고 덧붙였다.

사록은 “명예시민증은 내 삶에 있어 절대 잊지 못할 정점의 순간이었고, 내가 수십년 동안 광주와 미국의 전략적 관계에 대해 보도해온 것의 축적물이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그는 “군 통수권자인 전두환에 의해 5월17일 전국에 선포된 계엄령을 이행하기 위해 특별부대가 파견됐고 이들은 M-16소총과 총검으로, 계엄령 폐지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



구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군인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군사정권에 대항해 싸웠으며 계엄군들을 도시에서 밀어냈다고 썼다.

사록은 “이후 대다수 시민들의 참여로 자치공동체가 형성됐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1871년 ‘파리코뮌’과 비교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기간 여성들은 투사들에게 식수와 음식을 나눠 주고, 간호사와 의사들은 부상자들을 돌보았으며 시민들은 어린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지역 병원으로 몰려가 헌혈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사록은 “5·18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광주에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며 “U-2정찰기를 비롯한 미 전자정보부나 미 안보부에서 면밀하게 관찰되고 있었으며, 당시 북한군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바로 주시돼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사록은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장현 시장의 주도하에 3000여 명의 시민들이 큰 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회고하고, “광주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으며, 민주와 자유에 대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역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며 글을 맺었다.

사록은 그동안 미국 연방공무원노동조합 정책분석관이자 네이션지 미국국가안보정책 정기 기고자 등으로 활동했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 때 미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커머스지 기자로 활동하던 1996년 정보공개법을 통해 미국무성이 비밀파일로 보관중인 5·18 자료의 공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美 대선, 부시-클린턴 가문 재대결?

미국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인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부시’와 ‘클린턴’ 정치명문가의 재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4월 12일 “평범한 미국인들의 대변자(챔피언)가 되겠다”며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부시 전 주지사가 대선 출마표를 던진 것이다.

미 언론은 부시 전 주지사의 대권 도

클린턴 전 장관과 부시 전 주지사가 당내 경선 관문을 통과해 본선에서 만날 경우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24년 만에 양대 가문이 리턴 매치를 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클린턴 전 장관은 ‘부부 대통령’, 부시 전 주사는 ‘3부부 대통령’ 기록에 각각 도전하는 의미도 있어 정치적 재미를 더하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42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고, 부시 전 주지사는 41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차

남이자 43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다.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출마 선언

힐러리 클린턴 당내지도도 압도적 1위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다.

두 가문 간 재대결이 성사되려면 내부 당 경선에서 이겨야

전 선언을 계기로 부시-클린턴 두 가문 간의 대결 구도 가능성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클린턴 전 장관과 달리 부시 전 주지사는 20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장점에 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폭넓은 인지도, 풍부한 관록, 첫 여성 대통령 도전 기록 등에 힘입어 압도적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무소속이면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과의 경선을 큰 내상 없이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부시 전 주지사는 스페인어에 능하고 멕시코 출신 부인을 뒤 히스패닉계에 대한 표 확장성이 크지만,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히스패닉계의 총아’로 불리는 루비오 의원 등 내부 경쟁자들을 제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초반 여론조사에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한 부시 전 주지사가 출마선언 효과를 등에 업고 단독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번엔 ‘대기 귀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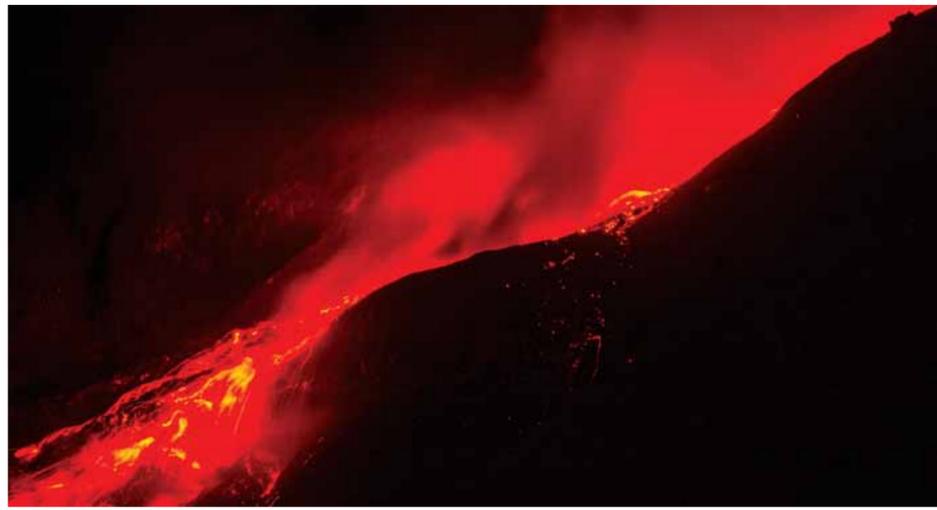
北 병사, GP 인근서 하룻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하전사 중 하급병사)는 귀순 하루 전 우리 군 소초(GP)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무장지대(DMZ) 내 GP 임무가 철책선 경계를 담당하는 GOP(일반전초)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시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중동부 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4일 밤에 북한측 철책을 통과한 후 어둠을 이용해 우리 군 GP 인근까지 접근해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군 병사가 대기한 장소는 GP 상황실에서 4~5m 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시나봉 산 화산 폭발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시나봉 산이 15일(현지시간) 폭발해 화산재 및 용암이 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2일 이후 2460m 높이에 이르는 이 화산의 폭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우라늄 저농축 등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가능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에너지부에서 한

미원자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협정 부속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외교부는 한미원자력협정 전문을 홈페이지(www.mofa.go.kr)에 공개했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

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 유통 생수 24개 제품 모두 안전

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관내 대형마트·편의점·소규모 점포 등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생수)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내 제품 20개와 수입제품 4개를 상대로 식중독균의 원인인 살모넬라균과 먹는샘물 원수의 오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브로마산염 등을 조사했다.

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우라늄과 페트병 제조 원료인 안티몬을 추가해 모두 51개 항목을 검사했다. 우라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마시면 신장 독성을 나타낸다.

안티몬은 발암성 물질로 구역질·어지럼증·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조사결과 대상 제품 모두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우라늄도 임계치인 수질기준(30µg/L)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특히 페트병 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티몬도 권고기준(15µg/L)보다 훨씬 낮은 미량으로 검출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숙경 시보건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샘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에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